

# 타문화권 설교: 선교지에서의 설교학 교육

문 상 기

<실천신학·조교수>  
skmoon@kbtus.ac.kr

## 들어가는 말

타문화권에서 현지인 지도자 육성의 과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나아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사들에게 있어 매우 중대한 일이다.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신학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교전략들이 실제로 세워지고 수행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선교지에서 현지인 지도자를 발굴하여 일정한 신학 훈련을 시킨 후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여지게 하는 목적을 가진다.

한 설교자가 타문화권 내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존 스타트(John Stott)는 그의 책 『현대교회와 설교』(*Between Two World*)에서 이점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설교자는 성서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접목시켜야 하는 쉽지 않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sup>1</sup> 그러나 설

---

<sup>1</sup> 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교사가 타문화권에서 설교를 할 때나 현지 지도자에게 설교학을 가르칠 경우에는 보다 주의 깊은 준비와 노력이 자연스럽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과 가르침이 전하여지는 현지의 문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자문화권에서 설교할 때 두 문화권의 중재자가 된다고 한다면 타문화권에서의 설교는 세 문화의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효과적인 통화자가 되어야 한다는 보다 가중된 책임감을 가진다. 따라서 현지인 지도자 육성에 있어 어떻게 설교학을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원리와 실행 방안이 요청된다. 본질적인 면에서 설교는 모든 신학의 바탕 위에서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측면에서 통화의 기능을 가지므로 설교학 교육은 충분한 신학교육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정서를 이해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타문화권 사역은 능률성과 효용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의 융합이 요청된다. 선교지에서 설교학 교사는 하나의 문화권 내에 살면서 오직 그 세계관에 친숙하며 그 범위 안에서 설교하게 될 현지인 설교자를 교육시키게 된다. 이때 타문화권에서의 설교학 교사는 성서의 내용과 자신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또 다른 세계관을 접하게 된다. 만일 선교사가 자문화권에서 설교하듯 현지에서 설교를 한다면, 현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충분한 전달 효과를 가지지 못할 것이며 아울러 복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현지인에게 설교학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복음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논문은 타문화권 상황에서 설교자를 훈련시킴에 있어 야기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타문화권 지역

에서의 설교학 교육이 가지는 어려움, 타문화권 설교자 훈련 방법의 개발, 그리고 다른 문화권을 위한 설교자 훈련에 뒤따르는 보상들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

## I. 세 개의 세계로부터의 문제점

타문화권 설교에 대한 훈련은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타문화권에 기독교적 영향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많은 기회들을 제공한다. 반면에 이 교육은 교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질문들을 제기시킨다. 예를 들어, 세 세계-선교사 교사의 자기 문화, 성서의 문화, 그리고 현지의 문화-는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의 문제들을 제기시킨다. 이에 관한 문제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적인 통화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다.

이 세 개의 다른 세계는 교사의 주의 깊은 관심을 요한다. 가일린 벤리는(Gailyn Van Rheenen)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문화권 전도지는 세 개의 문화들과 협력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타문화권 설교 준비는 설교자 자신의 문화와 진리를 통화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 그리고 메시지가 발원하는 신약의 문화를 친숙하게 알아야 함을 수반한다.<sup>2</sup> 타문화권 설교자 훈련 교육의 지속적인 결과는 리는이 말하는 이러한 토대가 형성되지 않을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 1. 첫 번째 세계: 교사의 문화

데이비드 버넷트(David Burnett)는, 오직 하나의 세계관만을 이는 사람은

<sup>2</sup> Gailyn Van Rheenen, *Biblically Anchored Missions: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Austin, TX: Firm Foundation, 1983), 62-63

세계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있는 말을 하였다.<sup>3</sup> 타문화권 교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요구조건은 자신이 훈련시키는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는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다. 버넛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관의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하나의 세계관은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의 문화권 안에서 태어나, 그 안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개발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만이 항상 옳다고 하는 믿음을 자연적으로 가지게 된다. 벤 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로 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단일문화주의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같으므로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의 기준 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는 가정이다. 자문화 우월주의(Ethnocentrism)는 자기중심주의(Egocentrism)와 같은 것으로서 자기 우월적인 태도에 빠지는 것이다…  
책을 통하여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최초에는 단일문화주의자의 입장에서 선교지 상황을 접하게 된다. 그들의 정서는 하나의 문화에 의해 지배를 받아 왔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모든 실체를 그들의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sup>4</sup>

지혜로운 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나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자 할 것이다. 자신의 세계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문화의식을 구분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된다.

<sup>3</sup> David Burnett, *Clash of Worlds* (Nashville: Oliver Nelson, Thomas Nelson, 1992), 36

<sup>4</sup> Van Rheenen, 58-59.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그에 대한 적절한 비평의식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문화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여러 면에 있어, 일반적으로 서구 세계관은 다른 문화들과 비교하여 우월성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비교된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특정한 상황을 예를 들어 이안 카릭크(Ian Carrick)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서구 세계관이 비록 기술적으로는 아프리카의 세계관보다 진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많은 측면으로 볼 때 실제로는 열등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문화의 가치관 관계의 조화에 달려 있는 것이다.”<sup>5</sup>

선교지 문화에 적응해감에 따라 교사는 자신의 세계관은 유일하거나 월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 다양한 세계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선교사의 문화독선주의는 먼저 모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의 타문화권 사역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2. 두 번째 세계: 성서 해석학

세 개의 세계 구도 가운데 두 번째로서 성서의 세계 또한 주의 깊은 고찰이 필요한 영역이다. 타문화권 상황에서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교사에게 요청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으로서 두 가지의 이슈를 들 수 있다. 그 중 교사의 입장에서 첫째로 확정지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헌신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성서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 1)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타문화권 설교를 가르치는 교사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확정짓지 못한다면 성서적 설교는 상대주의의 늪에

<sup>5</sup> Ian Carrick, “A Vision for Education in a Technological Socie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7 (1987): 40.

빠지고 말 것이다.<sup>6</sup>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설교자는 설교할 권위도 가질 수 없으며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에 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먼저 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설교학을 배우는 학생들 또한 허공 속으로 인도 되고 말 것이다.

설교자의 권위나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그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유일한 근원은 그분의 말씀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시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임스 팩커(James I. Packer)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계시가 본질적으로 구두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내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그 의미를 드러내며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여야 할 사실은 만일 구두적 계시가 없다면 계시 자체는 비단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나아가 부활 안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7</sup>

팩커의 요점은 매우 적절하다. 구두적으로 주어지고 어떠한 오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곧 설교자가 그의 권위를 부여받는 유일한

<sup>6</sup> 여기에서 말하는 상대주의는 성서 해석적 상대주의(Interpretive Relativism)로서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 없이 성서를 해석하는 설교자에 의해 성경 본문의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하나의 성경 본문이 해석자 개인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본문은 절대적 권위를 잃어버린다.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 관점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 자체에 두기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자에게 두게 되는 위험성을 초래한다.

<sup>7</sup> James I. Packer, *God Has Spoken: Revelation and the Bible*, rev. ed. (Grand Rapids: Baker, 1994), 72-73.

척도가 되는 것이다.

## 2) 설교와 해석학

설교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시 자체만으로는 타문화권 설교자 훈련을 위해 요청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없다. 적절한 해석학 또는 해석방법이 반드시 요청된다. J. 로버트슨 맥퀼킨(J. Robertson McQuilkin)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나 접근법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가 될 수 없다. 충실한 노동을 위한 좋은 태도와 헌신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구의 부품을 만들 수 있게 하는가? 아니다... 올바른 태도와 접근법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좋은 방법들을 사용하며 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능 또한 개발시켜 나가야만 한다.<sup>8</sup>

그러한 좋은 방법들은 설교자가 성경이 최초로 당시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던 것과 동일한 메시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게 하는 해석의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교자의 입장에서 청중들과 성서의 세계 사이의 갭은 매우 깊고 넓기 때문에 적절한 도구로서 해석학적인 원리가 적용될 때에만 그 두 세계의 벌어진 간격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데이비드 독커리(David S. Dockery)는 해석학이란 이 시대에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성경 본문의 의미와 중요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역사적 상황 안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sup>9</sup> 제

<sup>8</sup> J. Robertson McQuilki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Bible* (Chicago: Moody, 1983), 14.

<sup>9</sup> David S. Dockery, "Preaching and Hermeneutics," in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ed. Michael Duduit (Nashville: Broadman,

임스 우드(James D. Wood) 또한 해석이란 고대의 문서와 현대의 독자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단절된 간격에 다리를 놓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sup>10</sup> 아마 이 점에 관하여 버나드 램(Bernard Ramm)은 가장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해석학을 위한 두 개의 결정적인 필요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성서 저자들과 우리의 지성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언어적, 문화적,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 갭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해석의 방법의 필요성을 확증해주고 있다. 현명한 교사는 설교란 올바르게 해석된 충분한 성경의 말씀 위에 근거하여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그의 설교자료와 삶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며 그 안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들을 형성시킬 수 있게 한다.

### 3. 세 번째 세계: 선교지 문화

타문화권 설교 교사가 직면하는 세 개의 세계 중 마지막 세계는 목표지역 혹은 선교지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교사로 하여금 먼저 학생이 될 것을 요청한다. 선교지의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설교자가 낯선 땅 안에 거주하면서 배우는 자의 위치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선교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정서는 해당 문화의 실체를 기꺼이 탐구하고 가까이 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 이질적인 감정에서 동질적인 감정으로 스스로를 변화

---

1992), 142.

<sup>10</sup> James D. Wood,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 Historical Introduction* (London: Gerald Duckworth, 1958), 4.

<sup>11</sup> Bernard Ramm,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A Textbook of Hermeneutics for Conservative Protestants*, rev. ed. (Boston: W. A. Wilde, 1956), 7.

시키는 사람에게 전수될 수 있다. 도날드 스미스(Donald K. Smith)는 선교지에서의 크리스천 사역자들의 문화적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한 집단의 삶의 패턴에 익숙해지는 일에 실패하는 크리스천 사역자는 영원과 하나님을 알아 가는 문제에 관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죽음의 패턴에 관여할 기회들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sup>12</sup> 모든 타문화권 훈련 지침이 영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문화권 훈련 교사는 선교지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야 한다.

### 1) 문화와 세계관에 대한 지식

타문화권 사역자 훈련에 종사하는 교사에게 있어 첫 번째 목표는 학생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파악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진공상태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존재하듯 문화 안에 존재한다. 루이스 루즈베탕(Louis J. Luzbetak)에 의하면, 문화란:

상호연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관념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체득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생각들의 역동적인 체제이다... 문화는 세 가지 단계들이 있다: (1) 형식들의 표면적인 단계-의미를 떠나 상징적인 것으로 문화적 표준의 형태; (2) 기능들의 중간 단계-상징들의 의미, 논리, 의미심장함, 그리고 형상들을 존재케 하며 연결시키는 다른 관계성들; (3) 문화의 가장 깊은 단계-소위 사회의 심리학, 기본적인 가정(assumptions), 가치 그리고 경향성(drive) 등, 추론, 반응 그리고 동기의 출발점이다.<sup>13</sup>

<sup>12</sup> Donald K. Smith, *Creating Understanding: A Handbook for Communication across Cultural Landscapes* (Grand Rapids: Zondervan, HarperCollins, 1992), 34.

<sup>13</sup> Louis J. Luzbetak, *The Church and Cultures: New Perspectives in Missi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Series, no. 12 (Maryknoll: Orbis, 1991), 74-75.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배움은 효과적인 타문화권 설교학 교사가 고려해야 할 중대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문화습득의 기본적인 방법은 해당 문화 안에 잠기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는 사람들이 실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의 세계관을 통하여 인식될 수 있다.<sup>14</sup>

세계관은 그것이 형성된 문화에 일치하고 부합된다. 데이비드 버네트(David Burnett)에 의하면 특정한 문화적 지도들(maps)은 “패러딴(Paradigms)” 또는 “실체의 순환적 방식”과 같이 삶의 각 방면을 안내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그것을 세계관과 연결시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패러딴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식(model)을 위한 표시로 사용되는 반면에 세계관이란 용어는 많은 패러딴을 포함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식으로 사용된다.”<sup>15</sup>

또 다른 유추법을 사용한다면, “패러딴”은 실체의 특정한 분야를 위한 하나의 지도(map)로 묘사될 수 있다면 모든 다양한 지도들(maps)을 포함하는 세계관은 정신(mind)의 지도책(atlas)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세계관의 이와 같은 이해는 왜 고지식한 관찰자가 자기 자신을 문명인이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시적이라 간주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때 그의 지도책(atlas) 안에서 실체의 모든 지도들(paradigms)은 그의 문화에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현지 문화에는 제한된 이해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마치 이것은 미국의 특정 지방을 찾아가면서 한국의 지도책(atlas)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문화와 세계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뒤따르지 않는 한 타문화권 설교학 교사는 유능한 타문화권 변화 대행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선교사는 새로운 세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이 새로운 정서적 지도책(mental atlas)을 통하여 배우며 상호 교류하는 방법

<sup>14</sup> David J Hesselgrave,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An Introduction to Missionary Communication*, 2d ed. (Grand Rapids: Zondervan, HarperCollins, 1991), 197.

<sup>15</sup> Burnett, 18-20.

을 터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 문화와 세계관과의 성공적인 통합은 실질적으로 언어의 습득에 달려 있다.

### (1) 언어의 습득

언어의 습득은 선교를 위한 문을 여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지인의 가슴언어(Heart language)로 통화할 수 있는 외부인은 현지인들의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그는 그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외부인의 관점이 아닌 삶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언어는 선교사를 현지인의 가슴으로 연결시켜 준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깊은 단계의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해준다. 언어는 수용성과 배척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언어적으로 유능한 교사는 현지의 삶에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나 세계관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언어, 문화, 그리고 세계관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장기 변화의 대행자(long-term change agent)로서 사역하고자 하는 선교사가 현지의 가슴언어를 습득함에 실패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이요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사의 효용성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태도와 함께 그의 현지 언어의 소통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어떤 단기 선교사들이 충분한 언어의 습득이 없이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음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그러나 같은 수준에서, 장기 사역자들이 사역에 필요한 언어의 지식이 없이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sup>16</sup>

언어는 유능한 현지 사역자의 제일 첫째 조건이 된다. 선교지에서의

<sup>16</sup> J. Herbert Kane,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Grand Rapids: Baker, 1980), 130.

가르침이나 설교는 현지인들에 대한 사역자 자신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된다. 현지인들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언어로 다가올 때 그들의 메시지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다.

현지인들은 외부인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자 할 때 그의 노력에 감사할 것이며 격려를 보낼 것이다. 선교사의 그러한 최초의 노력은 칭찬과 더불어 환영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현지인들로 하여금 그가 보다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2) 듣기와 말하기

언어습득에서 선교사는 듣기와 말하기를 동시에 집중해서 공부하여야 한다. 같은 수준의 듣는 능력이 결여된 말하기 훈련은 선교사로 하여금 질문 받지 않은 것에 답변한다든지 문화적인 행동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딜레마를 연출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역자는 청각 기능을 개발시켜야 한다. 언어의 듣는 능력은 선교지의 사역자로 하여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구두 능력 또한 강화시켜 준다. 훌륭한 설교자(Speaker)는 어조(tone)나 억양에서 현지인들의 말을 잘 모방한다.

## 2) 통화의 양식(Pattern)

말을 잘 한다는 것은 통화에 사용되는 말의 스타일을 배우는 것을 내포한다. 진리가 어떻게 통화되며, 존속되며, 보존되며, 나아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관찰은 선교사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값진 문화적 실마리를 제공하여 준다.

### (1) 진리를 전달하는 패턴

아프리카의 소수 종족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Illiterate)인 문화 환경 안에서는 삶의 교훈들이 가르쳐질 때 격언이나 이야기, 혹은

수수께끼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는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묘사보다는 위에 언급한 매체 수단을 이용할 때 보다 효과적인 통화를 이룰 수 있다.<sup>17</sup>

## (2) 학습 방식의 차이

선교사는 선교지의 주민들이 배우는 스타일을 예의 주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선교지의 문화권 내에서 학습 양식은 한국이나 서구의 것과 매우 상이하다. 문자 이전의 문화나 문맹자들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으로보다는 그룹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지식이나 정보가 터득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대화나 토론의 방법이 강의식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룹 안에서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상호간의 일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나이가, 이와 같은 정보 전달 방법은 그룹 내의 토론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룹의 장로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전달된 내용들을 반복하기도 한다. 그레그 포트(L. Gregg Fort)는 짐바브웨의 문맹사회에서의 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가 있다. “문맹자들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색다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들의 학습은 그룹의 과정에 의존하며 어떤 이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낸다.”<sup>18</sup> 이처럼 학습 방법이 한국이나 서구의 문화권에서의 강의식 방법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화권에서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나 말씀의 선포 또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룹의 상호 교류 및 대화가 어떤 결론을 얻어냄에 있어

<sup>17</sup> Smith, *Creating Understanding*, 246.

<sup>18</sup> L. Gregg Fort, “Training Churches in the Hurungwe District of Zimbabwe to Deal with Demonized Persons through a Contextualized Biblical Approach,” (D.Min. Project,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55), 17.

모든 사람들로 기여하도록 기회를 준다면 중요한 생각이나 개념에 대한 반복은 가르침이나 지침을 줌에 있어 그 효과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빈번히 이와 같은 학습은 사람들이 그룹 내에서 다른 일로 인하여 함께 먹거나 서로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비형식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교사는 설교에 대한 학습은 문화의 패턴을 이해함이 없이 단순히 언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생각하여야 한다. 현명한 교사라면 이 세 개의 문화의 상호 연관 관계를 고려하여 설교의 통화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 II. 세 세계로부터의 함정

유능한 설교학 교사는 타문화권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세 세계로부터 필요한 개념과 교훈들을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훈들을 찾는 기간 중에 교사는 거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명한 교사라면 이러한 위험들을 찾는 것은 물론 피해나갈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세 세계는 모두 각각의 함정을 제공하는데 이점을 고려하여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 1. 서구화된 문화로부터의 함정

한국의 문화는 전통적인 규범을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이 이미 서구화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많은 점에서 서구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마도 이것은 한국이 서구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부터 상황화의 과정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교지에서도 서구문화의 영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점이 타문화권에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위험성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의 위험은 리는에 의해 언급된 바가 있는 단일 문화주의의 함정이다. 물론 이것은 타문화권 사역자가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유능한 타문화권 사역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장점이 되는 것은 받아들임과 동시에 약점 또한 인정하여 그의 새로운 환경 안에서 자문화와 현지 문화의 차이점을 고려한 최선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보다 비가시적인 것으로서, 더욱 위험한 생각은 서구적 형식의 학습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가정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다양한 학습 방식과 문화적으로 인정된 사고의 표현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가정은 오직 한가지의 교육 방법만을 고집하는 단호한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문화권 교사는 우주적인 것으로부터 특정한 것을 분리하여야 한다. 자문화 적으로나 현지 문화적으로도 일치하지 않는 독특한 방법들은 우주적 방식(model)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예수님과 바울에 의해 채택되었던 방법이라든지 지난 세기의 위대한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방식들이 모든 문화권 안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보다 가치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 2. 성서 문화로부터의 함정

성서의 문화 또한 함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사가 그가 처한 상황과 체감적 필요(Felt need)에 의해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 오는 것이다. 현명한 교사는 설교자들을 성서 안에서 훈련시키기 전에 성서적 이해의 기초를 확립시킬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연구를 요청하며 신실한 설교자는 자신이 평생 학생임을 인정한다.

## 1) 말씀에 대한 헌신

타문화권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신중하여야 할 하나의 사실은 학생들의 선정에 있어 부지런히 성서 연구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학을 배우는 학생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학생이 되고자하는 헌신적인 태도가 요청된다. 설교학도는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서를 연구하여 그의 자료 참고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연구의 결과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가르침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성서연구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은 도전과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은 신학 훈련과 더불어 더욱 견고해진다. 설교자에게 있어 기본적인 신학 훈련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성서신학이요, 둘째는 조직신학이다. 성서신학은 신학의 가장 근간이요 신학의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원래적 의미를 파악하며 당시의 계시가 기록되기까지의 배경, 저자의 기록 목적과 동기, 최초의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 및 역사적 상황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성서신학 훈련은 충실한 석의적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직신학은 신학의 뼈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계적이면서도 분석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르침을 파악하고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기본 틀을 알기 위해서 설교자의 조직신학적 안목은 매우 중요하다.<sup>19</sup>

설교학도가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연구를 위한 태도이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와 로버트 토마스(Robert Thomas)는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들을 몇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근면이다. 말씀의 연구는 고된 작업을 요한다. 설교자는 말씀의 영원한 학생이다. 설교자는

<sup>19</sup> John MaxArthur, Jr. and Robert L. Thomas, “목회자의 연구,” 『목회사역의 재발견』, John MacArthur and others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307-16.

그의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오늘날 설교자는 성경 안에서 이미 계시되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을 때 비로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말씀 연구는 언제나 고된 작업이다. 여기에는 어떤 지름길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설교학도가 구비하여야 할 연구를 위한 또 다른 태도는 성실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성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다루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 가지는 원래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성서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찾을 때 그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교훈과 적절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설교를 위한 설교는 있을 수 없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요, 그 진리를 정직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가 설교자에게 요청된다. 나아가 설교자는 한편의 설교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 한편의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요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청중들을 위한 배려이다.

설교학도의 연구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설교자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려는 부단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 2) 해석적 상대주의의 위험성

설교학도가 수립하여야 할 태도와 관련하여 설교학 교사가 학생에게

<sup>20</sup> Ibid., 316-22.

주지시켜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해석적 상대주의의 위험성이다. 이것은 설교자가 설교본문을 해석할 때 손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로서 그것은 한 본문의 본래의 뜻과 그 본문의 중요성 차이를 혼동하는 것이다. 하나의 본문이 가지는 본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설교자의 본문 해석에 있어 우선적인 과제는 이와 같은 변할 수 없는 의미(Fixed meaning 혹은 Exegetical meaning)를 찾는 것이다. 반면에 해당 본문이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주는가’는 개인적인 적용의 문제이다. ‘본문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매우 유동적이며 가변적이다. 성경 해석에 있어 이와 같이 해석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그 의미가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해석적 상대주의(Interpretive Relativism)이다.

해석적 상대주의는 해석자의 인본성과 주관성이 본문 해석을 지배하는 결과로 발생한다. 만일 한 본문이 해석자 본인에게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준다면 그 본문이 가지는 하나의 절대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 관점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그 자체에 두기보다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자에게 두게 하는 위험성을 초래한다.

해석적 상대주의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 설교자는 먼저, 본문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본문의 의미를 결정할 때, “본 구절 또는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 본문이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본 구절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여 본문의 본래의 뜻과 그 뜻을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석적 상대주의를 피하기 위해 해석자의 정서적 자세(포용력과 예민성)와 해석자의 진리에 대한 관점(어떤 절대적인 것을 찾는 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정확한 의미를 찾는 데는 많은 노력과 해석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해석자들은 즉각적 적용의 압박을 받으므로 해석의 과정을 무시하고 곧바로 본문의 개인에 대한 적절한 적용을 고려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본문을 해석할 때 원래적 의미

를 찾기 전에 이 본문이 해석자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혹은 이 본문이 가지는 중요성(Significance)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며 나아가 잘못된 해석, 잘못된 강조점, 잘못된 적용을 내릴 수 있게 한다.

### 3. 선교지 문화로부터의 함정

선교지 문화 역시 드러나지 않은 함정들을 가지고 있다. 선교지에서 외부인들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곳에 오히려 위험성들이 잠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지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성서적이며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선교사 교사의 문화 혹은 서구화된 그의 방식 등이 고려되는 경우와, 현지인들에게 반 단일문화주의적 강요, 그리고 문화적 학습 방식의 무비판적인 채택 등이 포함된다.

#### 1) 지도자 선정

선교지에서의 지도자 선정에 관한 문제는 아마도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일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원리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지도자들은 성서적이며 문화적 가치들의 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에드거 엘리스톤(Edgar J. Elliston)은 새로운 지도자 혹은 설교자에 대하여 다섯 가지의 비평적 관점을 제시한다. 부르심, 적성(능력), 성품, 헌신, 관계성. 그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는 지도력 개발을 세워나가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sup>21</sup>고 결론짓는다. 현명한 교사는 설교자 훈련생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현지인 지도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것이다.

#### 2) 종족 문화우월주의(Tribal Ethnocentrism)

선교사들이 다른 문화들과 교류할 때, 단일문화주의는 때때로 종족중심주의로 대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반응으로

<sup>21</sup> Edgar J. Elliston, *Home Grown Leaders* (Pasadena, CA: William Carey, 1992), 167-68.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의 문화에 매력이나 정감을 가지게 됨으로 마치 현지인들과 같은 방식의 삶(Go native)을 살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런 반응은 적절한 문화습득의 단계(Acculturation)를 무시하고 새로운 문화에 빨리 받아들여지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sup>22</sup> 이현모 교수는 그의 책에서 문화의 습득은 내적문화화(Enculturation)와 외적문화화(Acculturation)로 구분된다고 전제하면서 외적문화화의 습득은 이미 가족이나 친척 등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내적문화가 이루어진 후 다른 문화에 대하여 외부인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며 또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한다.<sup>23</sup>

### 3)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문화적 방식(Model)

또 다른 함정은 선교지 문화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된 학습 방식으로부터 온다. 아마도 선교지 문화에서 한국적이거나 서구적인 학습 방법은 적절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여타 문화적 방식들은 어쩌면 성경 학습에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명한 교사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방식들을 주의 깊게 평가해 보고자 할 것이다.

각 문화는 교훈적인 면이 있음과 동시에 함정을 가지고 있다. 유능한 타문화권 훈련 교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세 개의 세계들에 관하여 잘 배우는 것은 물론 상호 연관성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먼저 세 개의 세계 안에서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 살 때, 여러 가지 함정이나 위험성을 피하도록 준비될 것이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sup>22</sup> Van Rheenen, 136.

<sup>23</sup> 이현모, 「선교학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168-69.

### III. 세 세계를 위한 훈련

세 세계의 상호 연관성에 관련하여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때 교사는 세 세계를 고려한 훈련 방법을 개발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는 그의 문화로부터 최상의 것들을 선택하여 성서의 문화에 상호연관을 시키며 나아가 현지 문화에 접목시키고자 할 것이다. 어떠한 방법들이 여기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서적 기초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교사의 일차적인 책임은 학생들에게 성서적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이다. 말씀에 대한 제자 정신의 기초를 확립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들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오사돌로 이마소기(Osadolor Imasogi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은 그런 사람들(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 내포하는 것은 교회는 마땅히 신학 학습과 토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소위 부름 받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육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재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킬 수 있기에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sup>24</sup>

적절한 영적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sup>24</sup> Osadolar Imasogie, “The Church and Theological Ferment in Africa,”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9 (October 1985): 369.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복음화시키고, 준비시키며, 격려할 수 있는 설교자로 세워질 수 없을 것이다.

## 2. 적합한 문화적 방식의 채택

학습을 위한 문화적 방식의 채택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명한 교사는 현지의 문화권 내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문화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이 기초를 세울 것이다.

### 1) 문자를 아는 사람들(Literate)을 위한 전략

문자를 아는 사회에서 설교자를 양육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거기에는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개발된 방법들도 있지만 어떤 방법들은 한국식 혹은 서구식 등 수입된 방법에 기반을 둔 경우들도 있다. 수입된 방식의 성공 여부는 어느 정도 선까지 그 방법에 의존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지 문화가 급진적으로 서구화된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잠재적인 문화적 감수성은 그와 같은 방식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을 하게 될 것이다.

타문화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가장 친숙한 방법은 정규 신학교나 성경학교를 통한 것일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교과서, 강의 그리고 시험 등 한국이나 서구의 신학교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경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이삭 조코우(Isaac Zokoue)는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천의 이원론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지인들과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과과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sup>25</sup> 그의 주장은 고려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신학 교육은 실천성과 상황화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가 아직 연약한 지역이나 빈약한 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정규 신학교 교육의 제공이 가져다주는 이점으로는 지속적인 학생의

<sup>25</sup> Isaac Zokoue, "Education for Servant Leadership," *Africa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y* 9 (1990): 10-11.

증가라든가, 도서관 시설, 교육 시설물들, 그리고 준비된 교수들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리한 점으로는 가중한 비용, 시골지역의 학생들의 도시교회로의 이동, 학생들이 집과 가정을 떠나야 하는 문제 그리고 현지 교회가 수입된 방식을 따르기에 역부족인 점 등을 들 수 있다.<sup>26</sup> 학생들이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와 같은 현지 신학교육 프로그램이 이용되기도 한다.<sup>27</sup>

## 2)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illiterate)을 위한 전략

미전도 세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문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훈련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요청되고 있다.<sup>28</sup> 복음의 메시지는识字(識字, literacy)를 전제하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짐작컨데 무식자(無識字, non-literate)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성경의 공적인 낭독은 어쩌면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을 수도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읽는 것”에 착념하라고 당부하면서 사용한 용어 “*anagnwsei*”는 “공적인

<sup>26</sup> Avery Willis, “Contextualization of Theological Education in Indonesia,” ch. 9 in *Discipling through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A Fresh Approach to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1980’s*, ed. Virgil Gerber (Wheaton: Evangelical Missions Information Service, 1984), 154-55.

<sup>27</sup> TEE 방법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환경을 떠날 필요 없이 주 단위로 혹은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지만 도서관 시설의 부족이라든가, 훈련된 교사들의 부족 등의 문제, 나아가 신학교육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빈약한 지도자를 양산해 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sup>28</sup> Paul G. Hibert and Eloise Hiebert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eties* (Grand Rapids: Baker, 1995), 242.

낭독”이었다(딤편 4:13).<sup>29</sup> 톰 스테픈(Tom A. Steffen)은 만일 선교사 교사들이 가르치는 전략에 있어 지나치게 식자 중심적이 된다면 세계의 약 2/3 가량이 복음의 접촉에서 제외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한다.<sup>30</sup>

더욱이 무식자들에 관한 문제는 교육받은 유식한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무식자들은 선교사들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유식한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의 수단을 오직 식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폴 히버트와 엘로이스 히버트 메네시스(Paul G. Hiebert and Eloise Hiebert Meneses)는 이점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구전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을(Oral people) 복음화 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 안에서 교회 개척자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현지인의 전통적인 이야기체로 카세트 녹음을 하여 복음증거에 사용하고 있다... 성서협회들(Bible Societies)은 성경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림이나 만화책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라디오, 영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등도 구전 의존적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이다.<sup>31</sup>

구전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나아가 그 중에 설교자를 훈련시켜 그와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사역에 기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식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룹 학습과 토론을

<sup>29</sup> Barclay M. Newman, prep., *A Concise Greek-English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tuttgart, West Germany: United Bible Societies, 1971), s. v. “anagnwsei.”

<sup>30</sup> Tom A. Steffen, *Passing the Baton: Church Planting That Empowers* (La Habra, CA: Center for Organizational and Ministry Development, 1993), 111-12.

<sup>31</sup> Hiebert and Meneses, 242.

들 수 있다. 포트는 식지들과 무식자들로 구성된 그룹 안에서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한 바가 있다. 그는 토론과 혼합된 방법들을 채택하였다. 토론의 방법은 학습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토론을 통하여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인쇄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학습 자료들을 소화해내고 더불어 학습 과정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sup>32</sup>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억의 방법을 사용하며 신중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통화한다.

이와 같은 혼합된 그룹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작은 그룹들을 이용하여 성경 본문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일정 시간 설교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가르치는 형식이 포함된다. 훈련된 지도자가 각 그룹에 할당되어 그룹원 모두가 주어진 본문에 충실히 참여하도록 돕는다. 각 그룹은 이어서 주어진 성경 본문 안에서 설교를 작성해 나가는 방법에 관하여 강의를 듣는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각 그룹은 대표 한 사람씩 선정하여 준비한 설교를 연습하게 한다. 이때 모든 설교는 모든 사람들과 교사가 평가하여 각 사람을 격려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우는 기회로 삼는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을 통해 설교준비법에 관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IV. 실제적인 학습

식지들의 교회든지 아니면 무식자들의 교회든지에 관계없이 설교자 양육은 결과적으로 이론 교육에서 실제 연습으로 진행되어 나간다. 교사가 일단의 학생들을 모집할 때부터 학생들의 훈련은 시작된다. 실제적인 학습은 여러 단계들 즉, 본질적인 요소들 파악, 연습 그리고 교사에 의한 계속적인 평가 등을 포함한다. 본질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은 교사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적당한 형식을 갖추어 바른 원리로

<sup>32</sup> Fort, 17.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 1. 성서적 설교의 본보기

학생들이 설교학을 배우는 확실한 방법은 모방에 의한 것이다. 예수께서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6:40). 교사가 설교할 때, 학생들은 설교의 스타일과 설교 방법론에서 관찰하고, 질문하며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교습 방법은 방법과 메시지 양면에서 좋은 통찰력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설교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고양시켜 줄 수 있다.

### 2.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

두 번째 실제적인 학습 방법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강의실 테두리 안에서만 설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룩한 계시의 말씀에 대한 능력 있는 진리의 통화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설교를 추상적인 훈련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실제로 설교를 시도할 기회를 가지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이론적 기능들을 갖고 닦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도-교회개척-제자 훈련의 연속적 단계를 순서를 따라 참여시키는 것이다. 설교에 대하여 진지하게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학생은 개인 전도에 기여할 것이며, 먼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새로이 형성된 교회 안에서 설교할 기회를 가지고 싶어할 것이다.

### 3. 설교 평가

설교를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여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은 건설적인

비평가가 되는 것이다.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여러 가지 범실들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수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데이비드 할리(C. David Harley)는 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더 많이 연습하는 학생은 말씀의 통화 기능을 더욱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은 건설적인 비평을 받을수록 더 훌륭한 통화자가 될 것이라고 권면한다.<sup>33</sup>

## V. 세 세계로부터의 보상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며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 그들로 생산적인 복음의 설교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제자들이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기쁨 그리고 복음으로 형성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여 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대가를 가져다 준다. 진실한 보상은 언제나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 1. 성서적 기초를 확증시킴

현지에 거주하며 현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타문화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있는 표준으로 믿고 따르는 학생들을 양성해 낼 수 있다. 탁월한 교사가 남기는 유산은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선교사 교사가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거 제시할 척도는 있을 수 없지만 탁월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서 그들의 삶은 일생을 두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교사가 그의 학생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감을

<sup>33</sup> C. David Harley, *Preparing to Serve: Training for Cross-Cultural Miss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1995), 84.

심어준다면 그들의 사역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있는 삶과 설교 사역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 2. 사역의 확대

타문화권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침에 뒤따르는 두 번째 보상은 훈련받은 학생들이 온 나라 전체에서 스승의 사역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폴 히버트(Paul G. Hibert)는 반얀 나무와 바나나 나무의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교사의 사역이 장차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는지를 설명하여 준다. 반얀 나무는 거대한 크기로 성장하면서 죽기 전에 넓은 지역을 덮어서 은신처와 그늘을 제공한다. 반면에 바나나 나무는 새로운 가지를 나게 하고, 열매를 맺으며, 중국에는 2년도 채 안되어서 죽는다. 하지만 각각의 나무가 죽은 다음의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반얀 나무는 죽으면 주변을 불모지의 땅으로 남기는 반면, 바나나 나무는 또 다시 새로운 싹을 나게 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후손을 남긴다.<sup>34</sup>

이것이 말해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지도자를 육성하고 설교를 가르치며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교사들은 훌륭한 유산을 남기지만 두려워하는 교사들은 오히려 파멸만을 남긴다.

## 3. 바톤을 물려줌

아마도 타문화권 설교 교사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보상은 현지 지도자들이 가르침 받고 깨우친 것을 토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생산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일 것이다. 타문화권 교사는 그가 성서적인 문화, 그 자신의 문화를 통하여 나온 긍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현지 문화권 내에서 효과적인 통화 방법 등 그가 습득한 모든 것들을 그의 학

<sup>34</sup> Paul G. Hibert,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Grand Rapids: Baker, 1994), 173-75.

생들에게 물려주고 전수한다. 그렇게 함으로 학생들은 성서의 문화는 잘 받아들이고 스승의 문화는 지혜롭게 조절하여 선택하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지 지도자들이 자신의 문화 안에서 생존력 있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보증해 줄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가 바울 자신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과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은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을 보증해 줄 것이며 타문화권 교사의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확증해 줄 것이다.

## 나가는 말

타문화권 지역에서 설교자를 양성하는 사역은 교사들로 하여금 먼저 종으로서의 지도자로 자신을 헌신할 것을 요청한다. 그들은 현지 문화권에 자신들을 흠뻑 젖게 함으로, 현지문화를 기꺼이 배움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수용되는 외부인이 됨으로서 그 문화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교사들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 그들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이해하게 함으로 그들로 그들의 문화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게 하고 나아가 그 말씀의 통화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할 때 현지 문화에 걸맞는 방식을 택하여 그들이 가르치고 전수하는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정서에 잘 어울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문화친화적이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유능한 설교자를 양산하며 나아가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타문화권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사역을 확대시킨다. 그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하나

님의 말씀에 평생토록 헌신하게 하며, 나아가 그들로 미래의 세대에게 또 다시 바톤을 넘겨주게 하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현모. 「선교학개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0.
- MacArthus, John Jr. 「목회사역의 재발견」. 서원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 Adams, Daniel J. *Cross Cultural Theology: Western Reflections in Asia*. Atlanta: John Knox, 1987.
- Burnett, David. *Clash of Worlds. Faith and Culture Series*. Maryknoll: Orbis, 1992.
- Dockery, David S. "Preaching and Hermeneutics." In *Handbook of Contemporary Preaching*. Edited by Michael Dudit. Nashville: Broadman, 1992.
- Elliston, Edgar J. *Home Grown Leaders*. Pasadena, CA: William Carey, 1992.
- Gerber, Virgil, ed. *Discipling through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A Fresh Approach to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1980'*. Wheaton: Evangelical Missions Information Service, 1984.
- Harley, C. David. *Preparing to Serve: Training for Cross-Cultural Miss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1995.
- Hesselgrave, David J.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An Introduction*

- to Missionary*. 2d ed. Grand Rapids: Zondervan, HarperCollins, 1991.
-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Grand Rapids: Baker, 1994.
- Hiebert, Paul G., and Eloise Hierbert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eties*. Grand Rapids: Baker, 1995.
- Inch, Morris A. *Doing Theology across Cultures*. Grand Rapids: Baker, 1982.
- Kane, J. Herbert.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Grand Rapids: Baker, 1980.
- Klem, Herbert V. *Oral Communication of the Scripture: Insights from African Oral Art*. Pasadena, CA: William Carey, 1982.
- Luzbetak, Louis J. *The Church and Cultures: New Perspectives in Missiological Anthropology*.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Series. No. 12. Maryknoll: Orbis, 1991.
- McQuilkin, J. Robertso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Bible*. Chicago: Moody, 1983.
- Newman, Barclay M., prep. *A Concise Greek-English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Stuttgart, West Germany: United Bible Societies, 1971. S. v. anagnwsiV.
- Packer, James I. *God Has Spoken: Revelation and the Bible*. Rev. ed. Grand Rapids: Baker, 1994.
- Peter, George W.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Chicago: Moody Bible Institute, 1972.
- Ramm, Bernard.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A Textbook of Hermeneutics for Conservative Protestants*. Rev. ed. Boston: W. A.

Wilde, 1956.

Smith, Donald K. *Creating Understanding: A Handbook for Communication across Landscapes*. Grand Rapids: Zondervan, HarperCollins, 1992.

*sing the Baton: Church Planting That Empowers*. La Habra, CA: Center for Organizational & Ministry Development, 1993.

Stott, John R. W. *Between Two Worlds: The Art of Preaching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Van Rhee, Gailyn. *Biblically Anchored Missions: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Austin, TX: Firm Foundation, 1983.

Wood, James D.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 Historical Introduction*. London: Gerald Duckworth, 1958.

Bowen, Earle, and Dorothy Bowen. "Contextualizing Teaching Methods in Africa."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23 (July 1989): 270-75.

Carrick, Ian. "A Vision for Education in a Technological Socie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7 (1987): 33-44.

Gundry, Stanley N. "Evangelical Theology: Where Should We Be Going?"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2 (March 1979): 3-14.

Hesselgrave, David J. "Fitting Third-World Believers with Christian Worldview Glasses."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0 (June 1987): 215-22.

Imasogie, Osadolor. "The Church and Theological Ferment in Africa." *Evangelical Review of Theology* 9 (October 1985): 359-71.

Omukoli, Watson. "Leadership Training for Churches in Africa." *Africa Journal for Evangelical Theology* 11 (1992): 13-23.

Zokoue, Isaac. "Educating for Servant Leadership in Africa." *Africa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y* 9 (1990): 3-13.

Fort, L. Gregg. "Training Churches in the Hurungwe District of Zimbabwe to Deal with Demonized Persons through a Contextualized Biblical Approach." D.Min. Project,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95.